

註

- ① 金剛寺址는 扶餘郡恩山面琴谷里(금강이) 芝川邊에 東向한 百濟伽藍인바 一九六四年 三、四月에 國立博物館主管下 塔址·金堂址·講堂址·廻廊址가 發掘調査되었다.
- ② 史學研究第十四號拙稿「金銅塔身의 造成 樣式問題——扶餘金城山寺址出土——」
- ③ 一九三六年度古蹟調査報告「第四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 ④ 三國遺事卷四塔像皇龍寺九層塔條.
- ⑤ 高裕燮著 韓國塔婆의 研究「木造塔婆(一〇面)參照」.
- ⑥ 1、歷史學報第十輯 黃壽永論文「日本飛鳥寺遺跡發掘調査概要」.
2、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刊「飛鳥寺遺跡發掘調査報告」.
- ⑦ 高裕燮著 韓國塔婆의 研究「朝鮮塔婆의 本面目(木造)塔婆」參照(幅七寸五分·深五寸의 方孔이 있는 礎石).
- ⑧ 四天王寺址心礎石——一邊長三尺八寸餘·高三寸의 方形造出이 있는 方右中央에 一尺과 八寸大의 二段方孔이 있다(一九二二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四天王寺址」條).
- ⑨ 望德寺址心礎石——一邊長二尺一寸大의 八角形中央에 二段方孔이 있다(前掲書「望德寺址」條).
- ⑩ 山田寺址心礎石——上宮聖德法王帝說의「其柱礎中 作圓穴」이라는 데서 圓形舍利孔이 있음을 알 수 있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 ⑪ 巨勢寺址心礎石——一邊長 一五〇cm의 方形花崗岩上面에 徑九〇cm 深 一二cm의 圓形柱座孔안에 다시 舍利小孔이 뚫렸다(福山敏男解說에 依한).
- ⑫ 橘寺塔址心礎石——一七三cm에 一八二cm의 自然石上面에 方形造出이 있고 그 中央에 三耳가 있는 圓孔이 뚫려있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 ⑬ 法隆寺塔心礎石——心礎石中央에 徑二二·八cm 深 二四cm의 漏斗狀圓孔이 있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 ⑭ 若草伽藍塔址心礎石——幅 二七〇cm 高 一一二cm의 自然石 上面中央에 一邊長二八·六cm의 八角形柱座孔을 만들고 四隅에 突起部를 이룬것이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達城 玄風の石塔二例

金正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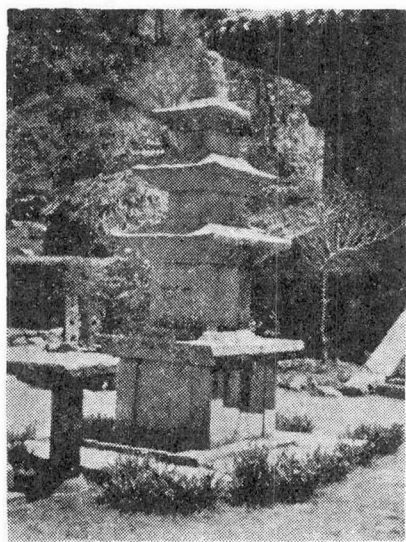
昨夏 慶北 達城郡、慶南 昌原郡、金海郡을 旅行한 바 있어 마침 達城郡 玄風面 附近에서 塔材 一部와 石塔 一基를 볼 수 있었다. 旅程에 餘裕가 없이 精査치 못한 채 두었으나 그 概略을 簡單히 紹介코저 한다.

一、玄風 鄉校內 石塔材

玄風部落 東端에서 約三〇〇m 떨어진 鄉校가 있다. 이 鄉校의 明倫堂과 大成殿의 基壇 및 礎石의 一部에 確然한 石塔部材가 散見된다. 즉 明倫堂에서는 亂雜한 大小 各種의 石材로 構築된 石壇石가운데 塔下層基壇의 地臺石과 一石으로 된 面石 또는 上層基壇의 甲石들이 눈에 띄고 上層基壇 甲石을 礎石으로 代用한 기둥들이 있다. 그밖의 石材들도 모두 어디에 使用된 것인지 갑자기 判斷하기 어려우나 塔材도 생각되는 石材를 使用하고 있다.

大成殿의 基壇은 前面 中央에 長約一·二m 幅約〇·五m의 中央에 徑約 二五cm

의 複瓣과 素瓣의 蓮瓣을 交互로 配置한 蓮華의 心房은 四區로 區分하여 中央과 各區에 一顆씩의 房珠를 넣은 特異한 八瓣蓮花文을 浮彫한 拜石이 끼어 있고 그 左右에는 塔身



과 基壇面石등을 使用하여 構築하였다. 이들의 石材는 모두가 統一新羅代의 寺址에서 搬入된 塔材를 主로한 石材로 생각되나 附近의 住民들은 搬入經過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二、瑜伽寺 大雄殿 앞 三層石塔

玄風에서 約八km 떨어진 瑜伽面 內山洞에서 琵琶山쪽으로 올라가면 瑜伽寺가 있고 그 大雄殿앞에 높이 三m가량의 아담한 三層石塔이 있다. 塔은 下層基壇이 없고 上層基壇은 撐柱가 없는 마치 塔身같은 느낌을 주는 塔이나 上層基壇 甲石으로 부터 三層屋蓋까지는 安定感있는 基本形으로 된 高麗初로 생각되는 것이다. 基壇甲石과 各層塔身、屋蓋가 各各 一石으로 되어 屋蓋받침은 四段이고 屋蓋는 두툼하고 처마轉角에서 若干 反轉되었다. 相輪部는 後補로 周圍에 蓮瓣樣을 浮刻한 精緻한 寶珠形石材를 三層屋蓋위에 올렸다. 이 塔은 住持의 말에 依하면 元來 他處에 있었던 것을 移建한 것이라 하나 原位置에 對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밖에 塔前에 方形 石燈 下臺石을 八角竿石 위에 있어서 올려 祭壇같이 만든 것이 있으며 境內에는 一邊 三五cm 高三〇cm假量의 塔身으로 생각되는 小石材가 放置되어 있다. 여기에는 四隅에 柱形을 彫出하고 四面에 如來座像으로 보이는 佛像을 彫刻하였으나 風化、磨滅이甚하다. 이의 年代는 三層塔보다 좀 앞서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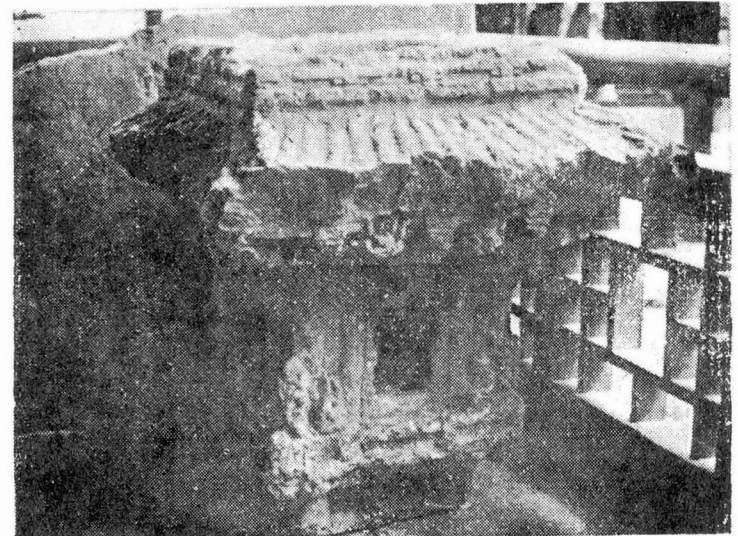
木造樣式的 石塔材 新例

申 榮 勳

작년十一月내력을 알 수 없는 石塔材를 海雲臺觀光호텔 舊館前庭에서 黃濤永教授가 發見하여 慶州博物館에 收藏하였는데 그것이 忠實히 木造物樣式을 模造하였기에 紹介하여 둔다. 原來 海雲臺에는 部材하나가 더 있었다 하나 아이들 장난으로 없어지고 塔身、蓋石하나씩만이 지

금 保存되고 있다.

塔身(現高三七·六cm 一邊長三一·八cm) 正側面三間의 方形, 中央間은 넓고 左右間은 좁은 樣式, 下層蓋石欄干 위에 놓이도록 만들어졌다. 塔身은 大別하여 床下部와 床의 上部(正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下部는 太厚한 圓柱에 平昌枋을 짜들리고 柱上에 커다란 柱頭를 두었고 簡潔한 包를 組立하여 正室 枋마루 끝 난간 아래의 귀를 힘있게 받았다.



正室도 正側三間, 軸部는 下枋, 平昌枋과 中央間 문실주로 構成되었고 文실주는 開放된 全間隔을 充分히 表示하였다. 이중 平昌枋은 柱頭목을 깊숙히 싸고 올라가 놓였는데 이는 普遍的인 手法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기둥은 圓柱, 柱身에 배흘림이 있고 柱上에 커다란 柱頭(高一·三五cm 幅四·二cm)가 놓여 素朴한 拱包를 結構하였다. 柱頭받침은 曲面으로 羅代의 他例(雙峰寺 澈監國師浮屠義城塔里石塔等)와 同類, 공포의 小累도 받침이 曲面으로 되었다. 공포는 柱心包系, 裝飾은 없다. 귀공포가 柱上의 공포와 따로 만들어져 있는 점도 注目된다. 더욱이 中央 柱間에 공포를 配置한 것은 特記할만 하다이 部分에는 小累받침 端子柱나 華盤類를 놓던가 小累받침을